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제4호 2018(569~583)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본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와 표상

김선희*

A Study on the Tourism Image and Representation of Seoul through Picture Postcard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unhee Kim*

요약 :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관광상품으로 발행된 한반도 사진그림엽서에 주목하고, 그 가운데 지배권력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식민지의 수도 서울의 장소이미지를 분류하여 빈도를 파악하고, 그 재현 양상과 특징, 이미지에 표상된 시선을 탐색하였다. 당시 서울은 조선의 '한성'에서 일제의 '경성'으로 장소 정체성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근대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연구결과, 사진그림엽서로 재현된 서울의 장소이미지는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이 대종을 이루는데 역사경관은 '조선적인 것'으로서 해체, 개조, 파괴, 변용의 대상이자 전근대적이고 쇠락한 정체된 전통으로 표상된 반면 도시경관은 '일본적인 것'으로서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발전상으로 표상되었다. 나아가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을 작위적으로 편집한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에서 차별적인 시선대비를 통한 공간의 식민화,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된 표상이었다. 따라서 근대 사진그림엽서가 제국주의적 시선과 인식이 투영된 하나의 정치적 산물로서 '이미지의 정치', '관광의 정치'를 위한 상징도구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사진그림엽서, 제국주의, 이미지, 재현, 장소상실

Abstract : This study classified the place image of Seoul based on the picture postcard produced as a tourist produ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alyzed the frequency, and searched the image representation aspect, characteristics, and the gaze and perception represented in the image. At that time, Seoul was emerging as a center of modern tourism as the place identity changed rapidly from 'Hansung' of Joseon to 'Kyungsung' of Japanese imperialis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lace image of Seoul is a major part of the historical landscape and urban landscape. The historical landscape was represented as a 'Chosunan', a subject of dismantling, remodeling, destruction, transformation, and a premodern and declining stagnant tradition. On the other hand, urban scenery was represented as a developmental symbol of modern civilization as 'Japanese'. Furthermore, the tourist image of Seoul, which edited the historical scenery and the cityscape, was a symbol mobilized to secure the colonialization of the space and the legitimacy of the colonial rule through discriminatory gaze contrast.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picture postcard of modern was used as a symbol tool for 'politics of image' and 'politics of tourism' as a political product projected with imperialist gaze and awareness.

Key Words : picture postcards, imperialism, image, representation, placelessness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강사(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nny-sungshin@daum.net)

1. 서론

여행지 마다 지역의 명승이나 관광명소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인쇄한 엽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흔히 관광엽서라고도 부르는 사진그림엽서[1]는 간단히 안부를 적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서신기능도 있지만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시각적인 소통매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엽서 또는 사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서 사진책자나 원판 필름 등과 마찬가지로 엽서에 인쇄된 사진과 그림들은 대개 사실성을 전제로 보여주고 싶고, 보고 싶은 장소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제작 및 소비 주체의 가치와 인식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진그림엽서는 우선 당대의 자연과 인문경관의 원형을 복원해 현시점에서 과거를 읽어 내거나 시대상과 장소성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동시에 타자에 의해 선택되고 소비된 특정 시기, 특정 장소의 이미지에 표상된 '시선'의 상징도구로 또는 예술성, 차별성, 희소성 등의 편집과 구성으로 관광욕구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광선전물로 이용되기도 한다. 유승훈에 따르면 지배나 권력구조는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잘 짜여 진 그물망처럼 미세하게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서구인이 동양을 타자화한 오리엔탈리즘에서 회화, 사진, 영상 등의 이미지 자료가 주요하게 활용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관념적 틀을 미리 설정하는 선험적인 시선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사진그림엽서는 '사실과 재현'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부산박물관, 2009).

한반도 사진그림엽서는 구한말에서 일제시기까지 일본에 의해 대량으로 제작, 발행되었는데 최근 이러한 사진그림엽서들이 근대 유물로서 한국과 일본에서 재조명되면서 다양한 전시와 도서 간행으로 이어졌다. 학계에서도 역사, 문화,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한반도의 이미지와 그것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의미와 특징, 그리고 이미지에 표상된 시선을 탐색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권혁희(2003)는 '재현의 정치학' 관점에서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주의를 분석하고 사진그림엽서를 식민지 지배자에 의해 재현된 '정치적 시선'의 산물로 결론지어 근대자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김창수(2009)는 일제시기 인천의 사진엽서 이미지를 분류하여 재현장소의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였고, 윤소라(2013)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인 여성이 어떻게 시각화되고 이미지가 생산되었는지 탐색하였으며, 오윤빈(2014)은 사진엽서를 통해 근대 한국의 이미지 형성과 표상을 분석하였다. 최현식(2016a; 2016b)은 일제 강점기 사진엽서와 시가의 문화정치학 관점에서 피사체의 본질과 성격, 문명과 야만,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 이미지와 시가의 결속을 살펴보고, '조선적인 것'의 식민화와 타자화를 향한 기호구성과 담론에 주목하여 사진엽서를 시선, 대상, 지배, 동원 영역으로 분류하여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였다. 신동규(2017)는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를 분류하여 한일병탄 과정과 합리화, 제국주의 선전을 살펴보았고, 최인택(2017)은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와 문명의 관계, 조선의 풍속기억과 오리엔탈리즘을 고찰하고 식민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실의 왜곡과 이미지 조작을 통한 사진그림엽서가 이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우라카와가즈야(浦川和也, 2017)는 한반도 그림엽서 안에 잠재된 근대 일본인의 시선과 만국박람회 등에서 보여준 '인간전시'의 배경에 깔린 제국주의적 시선의 공통성을 검증하였다.

사진그림엽서 외에도 다양한 기억유산을 통해 개화기부터 근대까지 서양인과 일본인의 눈에 비쳐진 한반도의 이미지와 시선을 탐색한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기행문, 일기, 편지, 견문록, 시찰보고서 등과 같이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경험과 기억을 관광여행의 관점에서 재현한 기록유산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기록물들은 여행지의 역사와 지리, 정치, 문화, 경제 등 사회전반의 방대한 지역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정서나 감정표현을 통해 타자의 가치와 인식 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상담론의 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서양인의 한국여행기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비숍(I. B. Bishop)[2]의 『*Korea and Her Neighbours*』(신

복룡, 2000)는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이미지와 재현 양상을 탐색하는 주요 텍스트이다. 이를 토대로 오리엔탈리즘, 제국주의 시선, 젠더 차별, 계몽적 시선, 상대주의적 시선 등을 다룬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박지향, 2001; 김희영, 2008a, 2008b; 신문수, 2009; 홍순애, 2010; 홍준화, 2014; 이지나·정희선, 2018). 로웰(P. Lowell)[3]의 여행기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조경철, 2001)를 대상으로 서구 중심적 사고와 오리엔탈리즘 논의, 다양한 시선과 표상을 탐색하는 연구도 전개되고 있다(김종갑, 2010; 우남숙, 2014; 이지나·정희선, 2017). 또한 일본인의 근대 한국여행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원의 수학여행 및 시찰여행 같은 단체여행을 통한 목적, 여정, 장소인식과 시선, 소감 등에 주목하고 있다(정재정, 2010; 임성모, 2011; 권희주, 2013). 특히 1925년과 1932년 일본 교원들의 한국여행을 비교 분석한 정치영·米家泰作(2017)에 의하면 1906년 아사히신문사가 기획한 '滿韓巡遊船'은 한국과 만주를 대상으로 한 단체해외여행 붐의 발단이 되었고,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과 교원여행의 열기로 이어졌다. 여정은 주로 전적지를 돌아보고 제국의 신흥 도시와 경제상을 시찰하였는데 당시 중앙부처나 언론사 등에서 단체여행을 적극 장려했음을 감안하면 교원들의 인식에 흐르던 쇠퇴하는 식민지와 발전하는 제국의 문명에 대한 시선대비는 조선총독부의 관광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위에서 살펴 본 사진그림엽서나 여행기는 모두 시대상과 장소성, 타자의 인식체계가 투영된 문화적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여행기가 자유의지와 가치, 시선으로 자아의 경험과 기억을 재현한 반면 사진그림엽서는 식민지 통치하에서 자아의 타자화, 대상화를 위해 선택, 편집, 소비된 이미지가 재현된 것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 유물로서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장소이미지와 표상을 읽어보고자 구한말부터 일제시기까지 제작, 발행된 한반도 사진그림엽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배 권력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서울에 주목하였다. 당시 서울은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한성'과 근대 도시문명의 상징인 '경성'이 혼재하는 변화와 관광여행의 중심지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이미지를 속성에 따라 주제와 내용으로 분류하여 이용 빈도를 파악하고, 관광여행의 관점에서 서울의 장소, 경관이미지가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그 양상과 의미,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관광이미지에 표상된 일본의 시선과 인식을 살펴보았다.

2.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분류와 이용

일본에서 그림엽서(繪葉書)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 사제엽서 발행이 허가되면서부터이다. 러일전쟁(1904~1905) 이후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이 본격화되고, 그림엽서가 정보전달을 위한 대중적인 영상매체로 부상하면서 관광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림엽서 열풍'으로 기념엽서를 비롯해 명소, 풍속, 광고, 미인, 저명인엽서까지 다양한 엽서가 발행되었다. 그 중 한반도 그림엽서는 근대 일본이 통치했거나 세력 하에 두었던 지역의 그림엽서 중에서도 특히 다종다양하면서 대량으로 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산박물관과 일본 나고야성박물관(名護屋城博物館)이 수집, 소장하고 있는 구한말부터 일제시기까지의 한반도 사진그림엽서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는 도록 출판물 두 가지를 자료로 선택하였다. 2009년 부산박물관의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1~8)』(이하 자료1)과 2017년 우라카와가즈야(浦川和也)의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1~7)』(이하 자료2)이다. 두 자료에 수록된 한반도 사진그림엽서는 총 6,375매로 지역적으로는 서울, 평양, 부산, 인천, 개성 등 도시를 비롯해 한반도 전역이 포함되어 있고, 주제는 역사유적, 명승, 건축물, 거리풍경, 풍속, 생활, 기생 등 자연 및 인문 경관이 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서울의 사진그림엽서는 모두 1,452매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의 22.8%로 다음의 평양 10.1%에 비해 2배 이상을 차지하는데 일부 사진그림엽서가

표 1. 연구자료의 사진그림엽서 정보

구분	전체(%)	서울(%)	시간범위	비고
자료1	3,724(100.0)	901(24.2)	구한말~일제시기	도시, 관광 분류 중 '경성사진엽서' 대상
자료2	2,651(100.0)	551(20.8)	일제시기	명소그림엽서 분류 중 '경성그림엽서' 대상

중복되고, 제작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며, 도시, 풍속, 의례, 생활 등의 이미지를 관광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목적인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20세기 전반 서울의 관광이미지 재현 양상과 시선을 살펴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 자료의 분류에 따라 도시, 관광, 명소 사진그림엽서 중 '경성'에 해당하는 이미지 전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사진그림엽서에는 중심 이미지인 사진 외에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대개 엽서 1매에 사진 1장을 사용하고 일본어 제목과 지역이 표기되어 있으며, 조선명소·경성명소·경성백경 등 주제가 명시되어 있어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발행된 매체임을 주지시켜준다. 이외에 그림, 시가 등이 첨가된 경우, 채색으로 칼라사진처럼 보이게 하거나 펜화로 스케치한 경우, 영문표기가 더해진 경우, 간단한 부가설명으로 의도와 인식을 드러낸 경우, 京14·龍41 같이 시리즈 번호를 매긴 경우, 기념소인을 찍어 목적을 표시한 경우, 엽서 1매에 2~5장의 사진이나 그림을 조합한 경우 등 형식과 구성이 다양하다. 이러한 부가정보들은 이미지 재현 양상 외에 제작의 목적과 의도, 시선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사실 서울의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각 이미지의 정확한 등가(等價) 기준설정이나 일제에 의해 변질된 궁궐 풍경과 시설물을 역사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1,452매의 서울 사진그림엽서에 재현된 각 이미지의 속성과 소속을 기준으로 크게 역사경관 이미지와 도시경관 이미지로 대별하고 각기 주제와 내용으로 하위분류하였는데 그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자료 모두에서 역사와 도시 등 인문경관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자연경관은 북한산, 세검정, 우이계곡 등 4~5장이 실려 거의 전무하였다. 다음으로 기타 분류를 제외하면 전체 이미지 가운데 역사경관이 485장으로 36.4%, 도시경관이 847장으로 63.6%를 차지해 도시이미지가 월등히 많고 다양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을 포함해 조선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과 조선인들에게 일본이 보여주고자 했던 이미지가 새로 건설한 식민지의 수도이며 식민지적 근대화의 표상으로서 경성의 다양한 발전상이었음을 방증해준다. 셋째, 역사경관 이미지는 두 자료 모두에서 고궁, 도성, 성균관, 원구단 순의 이용 빈도를 보인 반면 도시경관 이미지는 자료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 자료1에서 시가지, 종교시설, 사회시설, 경제시설, 공원, 정치시설, 교통시설 순으로, 자료2에서 종교시설, 시가지, 사회시설, 정치시설, 경제시설, 교통시설, 공원 순으로 이용 빈도를 보였다. 넷째, 주제별로는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고궁 이미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근대도시의 상징으로 다양한 시가지 이미지와 식민화의 상징인 조선신궁 이미지가 비슷한 수준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

사진그림엽서 이미지를 내용으로 세분해 보면 먼저 역사경관 이미지로 경복궁의 경회루·근정전·향원정·광화문, 창덕궁의 후원·돈화문·인정전, 창경궁의 식물원·동물원·벚꽃풍경, 덕수궁의 석조전, 한성의 남대문·동대문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특히 경복궁 경회루, 창덕궁 후원, 창경궁 식물원 등은 주요 전각이나 궁문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여 궁궐의 권위와 상징을 내정의 이미지로 대체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도시경관을 대표하는 이미지로는 조선신궁이 자료1과 자료2에서 각각 6.3%, 8.5%의 점유율로 단일 이미지로는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이미지는 자료1과 자료2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표 2.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이미지와 빈도 분포

이미지			자료1		자료2	
			빈도	%	빈도	%
고궁	경복궁	광화문	15	1.7	6	1.1
		근정전	21	2.3	16	2.9
		경회루	42	4.7	23	4.2
		향원정	15	1.7	10	1.8
		기타	4	0.4	5	0.9
		소계	97	10.8	60	10.9
	창덕궁	돈화문	13	1.4	6	1.1
		인정전	10	1.1	6	1.1
		후원	20	2.2	13	2.3
		주합루	7	0.8	3	0.5
		기타	5	0.5	3	0.5
		소계	55	6.1	31	5.6
	창경궁	홍화문	6	0.7	2	0.4
		식물원	23	2.6	17	3.1
		동물원	12	1.3	5	0.9
		벚꽃풍경	10	1.1	4	0.7
		기타	2	0.2	2	0.4
		소계	53	5.9	30	5.4
	덕수궁	대한문	7	0.8	1	0.2
		중화전	6	0.7	0	0.0
		석조전	9	1.0	6	1.1
		기타	6	0.7	0	0.0
		소계	28	3.1	7	1.3
한성	성곽		6	0.7	4	0.7
	남대문		42	4.7	15	2.7
	동대문		14	1.5	10	1.8
	서대문		2	0.2	0	0.0
	기타		7	0.8	2	0.4
	소계		71	7.9	31	5.6
성균관			9	1.0	10	1.8
원구단			3	0.3	0	0.0
시가지	시가전경		30	3.3	19	3.4
	남대문로		28	3.1	14	2.5
	충무로		15	1.7	7	1.3
	종로		12	1.3	5	0.9
	광화문로		6	0.7	1	0.2
	을지로		5	0.5	2	0.4
	독립문로		15	1.7	11	2.0
	기타		4	0.4	0	0.0
	소계		115	12.8	59	10.7
공원	파고다공원		32	3.5	12	2.2
	남산공원		13	1.4	3	0.5
	장충단공원		15	1.7	8	1.4
	소계		60	6.6	23	4.2

이미지		자료1		자료2	
		빈도	%	빈도	%
정치시설	총독부	31	3.4	27	4.3
	총독관저	7	0.8	4	0.7
	경성부청	14	1.5	3	0.5
	군경시설	0	0.0	4	0.7
	기타	5	0.5	1	0.2
	소계	57	6.3	39	7.1
사회시설	교육기관	30	3.3	12	2.2
	우체국	19	2.1	9	1.6
	병원	12	1.3	9	1.6
	언론사	7	0.8	0	0.0
	극장	12	1.3	6	1.1
	박물관	0	0.0	7	1.3
	운동시설	7	0.8	5	0.9
	기타	2	0.2	1	0.2
	소계	89	9.9	49	8.9
경제시설	호텔	19	2.1	7	1.3
	백화점	12	1.3	7	1.3
	회사	16	1.8	4	0.7
	은행	16	1.8	12	2.2
	기타	2	0.2	3	0.5
	소계	65	7.2	33	6.0
교통시설	경성역	12	1.3	11	2.0
	용산역	7	0.8	3	0.5
	한강철교	19	2.1	11	2.0
	한강인도교	14	1.5	6	1.1
	소계	52	5.8	31	5.6
종교시설	조선신궁	57	6.3	47	8.5
	박문사	16	1.8	9	1.6
	기타 신사	13	1.4	5	0.9
	명동교회	4	0.4	1	0.2
	기타	2	0.2	0	0.0
	소계	92	10.2	62	11.3
취락	선인마을	1	0.1	10	1.8
	신시가지	2	0.2	0	0.0
	일본가옥	0	0.0	8	1.4
	소계	3	0.3	18	3.3
기타	경성백경	22	2.4	36	6.5
	경성신대관	19	2.1	0	0.0
	엽서봉투	0	0.0	16	2.9
	펜화엽서	0	0.0	7	1.3
	생활상	2	0.2	3	0.5
	기타	9	1.0	8	1.4
	소계	52	5.8	68	12.3
합계		901	100.0	551	100.0

대개 시가전경과 남대문로, 파고다공원, 총독부, 교육기관과 우체국, 호텔과 은행, 한강철교와 경성역, 박문사 등이 근대도시의 표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분류에서는 1매의 엽서에 2~5장의 사진과 그림을 조합하여 서울의 관광이미지와 표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경성백경과 경성신대관을 비롯하여 채색엽서봉투, 펜화엽서 등을 통해 관광상품으로서의 매체활용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트로 제작, 발행된 사진그림엽서에서는 작위적으로 선택, 편집된 관광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일제의 차별적 시선과 인식을 엿볼 수 있다.

3. 사진그림엽서로 재현된 근대 서울의 이미지와 표상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기까지 개항과 국권상실, 식민지 지배 등의 역사적 격랑 속에서 서울은 '한성'에서 '경성'으로 장소 정체성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조선다운 역사와 전통이 왜곡, 변질되고 지워지는 대신 제국주의 표상으로서 근대 건축물, 전차, 포장도로, 철도, 번화한 거리 등이 일본다운 모습으로 부각, 선전되었다. 개항 이후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과 새로운 식민지의 수도를 보고 싶어 하는 일본인들에게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담긴 사진그림엽서는 단순한 관광홍보물이 아니라 식민지적 이미지 만들기(image making)와 선전을 위한 수단이었다. 당시 일본이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서 서울의 이미지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재현되었을까?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에 재현된 이미지는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이 대종을 이룬다. 본장에서는 사실의 재현과 표상된 이미지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이미지의 구체적인 재현 양상과 의미, 특징을 살펴보았다.

1) 서울의 역사경관 이미지와 표상

연구 자료에 수록된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가운데 역사경관을 담고 있는 것은 485매로 일제가 대상화, 피사체화 한 역사와 전통의 이미지는 대개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고궁이미지가 74.4%, 남대문·동대문·성곽 등 한성이미지가 22.5%로 대종을 이루고, 경학원으로 소개된 성균관, 원구단 등이 뒤를 따른다. 반면 역사경관 중 일제에 의해 파괴된 경희궁이나 종묘, 사직, 왕릉 등의 이미지는 전무하였는데 이는 고대 역사에서 같은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적인 조선의 역사지우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역사경관 이미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조선 왕조와 전통의 집약체인 궁궐에서 일제가 조선다운 것으로 가장 빈번하게 재현하고 있는 이미지는 공통적으로 각 궁의 정문과 정전, 그리고 어원이었다. 궁궐의 정문과 정전은 권위의 상징이며 어원은 최고의 심미를 엿볼 수 있는 내정으로 얼핏 일본이 수도 경성을 대표하는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궁궐 이미지를 통해 재현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시 일제에 의해 선택되고 소비되어진 조선의 역사경관이 해체와 개조, 파괴와 변용의 대상이었음은 재현된 이미지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그림 3은 궁문 이미지이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조선물산공진회의 출입문으로 이용되었고, 1926년 옛 흥례문 터에 총독부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1927년에는 광화문이 해체되어 건춘문 북쪽으로 이전되었다. 돈화문은 고종과 순종의 거처로 무장군인이 경비를 서는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었으며, 홍화문은 일장기와 야간개원 현수막이 걸려 있고 좌우 매표소 앞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뒤섞여 입장을 기다리는 도심 유원지의 출입구로 전락했다.

그림 4~그림 13은 왕조의 상징공간인 궁궐 이미지이다. 근정전(1)은 품계석이 늘어선 앞뜰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 왕조의 쇠락을 예증하고, 근정전(2)과 경회루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1929년 조선박람회가 개최되면서 궁궐의 정체성이 인파로 붐비고 차량이 드나드는 행사장이자 전시장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인정전은 권위를 박탈당한 사물화 된 공간으로서 기모노 차림의 일본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고, 아름다운 금원은 비원으로 불리며 내지인들의 휴식처가 되었으며, 주합루에 걸린 일장기는 왕

그림 1. 경복궁 광화문

그림 2. 창덕궁 돈화문

그림 3. 창경궁 홍화문

그림 4. 경복궁 근정전(1)

그림 5. 경복궁 근정전(2)

그림 6. 경복궁 경회루

그림 7. 창덕궁 인정전

그림 8. 창덕궁 후원

그림 9. 창덕궁 주합루

그림 10. 창경궁 명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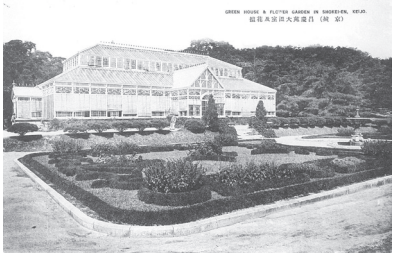

그림 11. 창경궁 식물원

그림 12. 창경궁 동물원

그림 13. 창경궁 벚꽃풍경

그림 14. 남대문(1)

그림 15. 남대문(2)

그림 16. 동대문(1)

그림 17. 동대문(2)

그림 18. 돈의문

조와 궁궐에 대한 모독이자 지배권을 주지시키고 있다. 특히 창경궁은 대표적인 궁궐 관광지화의 표상으로서 일제가 궁궐을 어떻게 훼손, 개조, 변용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일제는 명정전 앞뜰에 모란을 가득 심었고, 1909년 식물원과 동물원을 세웠으며, 내정에는 수만 그루의 벚나무를 식재하였다. 급기야 1911년 창경원으로 이름이 바뀐 창경궁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섞여 만개한 벚꽃풍경을 즐기고 야간개장으로 낮밤 없이 벚꽃놀이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의 대표 소풍지, 볼거리로 전락했다.

그림 14~그림 18은 도성의 상징물이자 교통의 중심축을 이루던 성문 이미지이다. 남대문 성벽을 따라 상점들이 늘어서고 행인들로 붐비던 옛 모습은 일제에 의해 성벽이 잘려나가고 넓은 도로 위를 전차와 자동차가 달리면서 성문의 기능은 사라지고 주변에 들어찬 근대 건축물들 속에 고립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동대문은 옹성 밖의 민가와 생활상이 성벽이 사라진 성안의 도로와 전차길, 상점들이 들어선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돈의문은 성벽 아래로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전차가 성문을 드나들던 옛 모습이지만 도시계획을 명분으로 일제가 도성과 성문을 파괴하면서 멸실되었는데 근대성에 가려진 장소상실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서울의 역사경관 이미지들은 일제의 시선에서 '과거의 것', '조선적인 것'으로서 파괴, 해체, 개조, 변용의 대상이었고(김백영, 2009), 전통과 왕조의 상징으로서 궁궐, 도성, 성문 등 역사공간에 대한 일본의 이미지 전략은 역사적 가치와 장소지우기를 통한 공간의 식민화였다(김덕현 등, 2005). 이를 위해 조선의 궁궐을 왕조의 쇠락과 지체, 허상의 이미지로 부각시키거나 행사장이나 유원지로 전락시켰고, 도로, 전차, 근대 건축물 등 식민지적 근대화의 표상은 도성과 성문의 파괴를 정당화했다. 결국 근대시기 일제에 의해 선택되고 소비된 서울의 전통 역사경관 이미지는 일본이 제국과 식민지의 본질과 가치를 부정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시선을 대비시키기 위해 동원한 상징도구였다.

2) 서울의 도시경관 이미지와 표상

도시경관을 담고 있는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는 847매로 역사경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량과 종류가 많았다. 그 중 새롭게 변모하는 시가전경과 가로 이미지가 20.5%, 일본의 가치와 식민지배의 상징인 신사 이미지가 17.4%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 경제, 정치, 교통시설과 관련한 근대 건축물, 도시공원, 취락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일제가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내지인의 해외여행을 적극 장려하였는데 특히 한일강제병합 이후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지식인, 귀족, 지방유지 등의 국내여행도 장려하여 서울을 비롯한 지방도시의 관광개발이 활발하였다. 그 중 서울은 새로운 식민지의 수도이자 동경을 모방한 동아시아의 대도시로서 전통과 역사, 문명과 근대성이 공존하는 최고의 관광지로 인기를 끌었다(李良姬, 2007; 조성운, 2009). 일본인에게 조선의 한양을 압도하는 제국의 경성은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물이며 서울관광은 외지에서 일본을 확인하는 경험이었다. 당시 일본이 내지인과 조선인, 세계를 향해 보여주고자 했던 '일본다운 것', '문명적인 것'으

로서 서울의 이미지는 과거 역사경관에 대비되는 근대 도시경관이었다.

그림 19~그림 21은 서울의 도시경관 중에서 단일 이미지로는 재현 빈도가 가장 높았던 조선신궁 이미지이다. 일제는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한반도 전역에 신사를 세워 조선인의 참배를 강요했는데 패망 당시 무려 1,141개의 신사가 확인되어 황국신민화를 위한 폭력을 짐작케 한다(부산박물관, 2009). 이 중 일본의 건국신과 메이지천황을 모신 최고 권위의 신사로 1925년에 세워진 조선신궁 이미지들은 남산 중턱에 넓게 자리한 전경, 가파른 돌계단, 신사의 상징인 도리이(鳥居) 등으로 최고의 위상과 위엄을 표상하고 있다. 특히 신궁에서 본 시가지 이미지에서는 식민지를 내려다보는 지배자의 시선이 드러나고, 신궁 입구에 높은 각도로 설치된 360여개 돌계단은 지배 권력을 올려다봐야 하는 피지배자의 시선이 대비되고 있다.

그림 22~그림 29는 시가지 이미지이다. 시가전경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광화문 대로를 따라 중심부에 자리한 경성부청을 경계로 북쪽의 조선인 거주지와 남쪽의 일본인 거주지가 대조적인 경관을 이룬다.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남북대로 경관에서는 경복궁, 총독부, 경성부청, 부민관, 조선은행 등 서양식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가로 경관에서는 수많은 상점과 정비된 포장도로, 전차, 행인들로 붐비는 서울의 상업 중심지의 모습들이 많이 재현되었다. 또한 서대문 밖 의주로에 있는 독립문은 일제가 청일전쟁으로 조선이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세웠다는 왜곡된 부가설명과 함께 자주 재현되었는데 독립문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에서 의주로의 변화가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30~그림 33은 서울의 정치, 사회, 경제, 교통시설과 관련한 근대 건축물 이미지이다. 철거된 경복궁 흥예문 터에 1926년 세워진 조선총독부는 조선역사의 상징인 경복궁을 완전히 가려버렸고, 총독부 신청사와 경성부청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본거지로 '웅장하다', '장대하다' 등으로 수식되며 대표적인 도시경관으로 재현되었다. 이외에 충무로 입구에 붉은 벽돌과 화강암으로 화려하게 지은 경성우체국을 비롯한 조선은행, 조선총독부의원, 조선호텔, 미쓰코시 백화점, 명치좌 극장 등 근대 건축물들이 서울의 파노라마를 이루었다.

그림 34~그림 36은 근대를 표상하는 새로운 교통

그림 19. 조선신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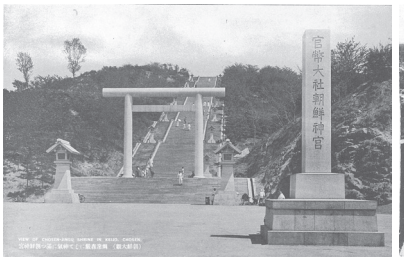

그림 20. 조선신궁 돌계단

그림 21. 신궁에서 본 시가지

그림 22. 서울 전경

그림 23. 태평로와 광화문로

그림 24. 남대문거리

그림 25. 종로거리

그림 26. 황금정거리(을지로)

그림 27. 본정거리(충무로)

그림 28. 의주로(1)

그림 29. 의주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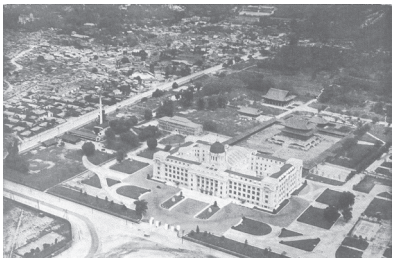

그림 30. 조선총독부 전경

그림 31. 조선총독부

그림 32. 경성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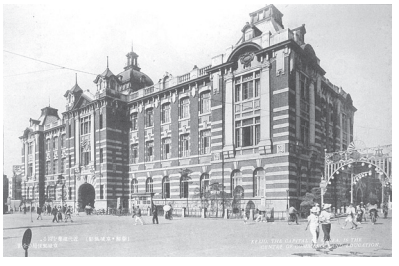

그림 33. 경성우체국

그림 34. 한강철교

그림 35. 한강인도교

그림 36. 경성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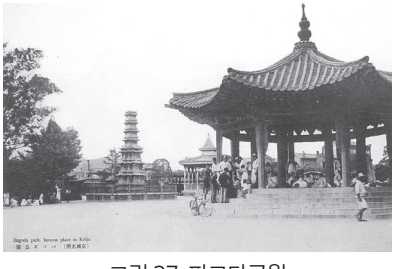

그림 37. 파고다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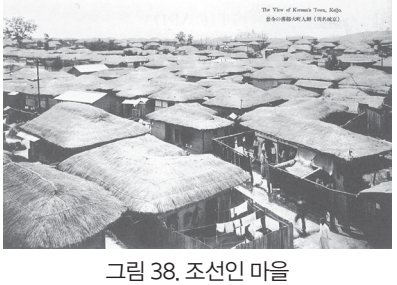

그림 38. 조선인 마을

그림 39. 일본인 거주지

수단 이미지로 1900년 노량진과 용산을 잇는 복선 한강철교는 '긴 뱀과 같이 길게 뻗은 장관이 실로 경이롭다'는 묘사처럼 인적, 물적 왕래를 촉진한 위대한 근대문명의 산물로 여겨졌고, 한강인도교는 사람과 자동차, 전차가 함께 도강할 수 있는 서울의 명물이 되었으며, 1925년에 세워진 경성역은 서울의 관문으로 광장에는 자동차와 이용객이 붐비는 근대도시의 상징으로 재현되었다. 일제는 총독부-경성제국대학-경성역-조선신궁을 잇는 직사각형의 서울 중심부에 경성부청을 세우고 그 주변으로 다채로운 근대 건축물을 채우면서 조선의 인상을 일본적인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

그림 37은 원각사가 있던 자리에 세운 최초의 도시공원인 파고다공원으로 원각사지십층석탑과 육각당을 배경으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상징하는 근대도시의 또 다른 표상이 되었고, 그림 38과 그림 39는 초가집이 밀집된 조선인 마을과 남산에서 용산까지 서양 가옥과 건물이 들어 선 일본인 거주지인 신시가지 이미지가 대조를 이룬다. 지금까지 일본의 가치와 전통문화를 이식하고 내선일체를 실현하기 위해 시선을 대비시킨 조선신궁을 비롯하여 번화한 거리, 근대 건축물, 포장도로와 전차, 철도와 철도역, 도시공원 등 근대 문명의 표상들이 식민지 수도의 장소 정체성을 대체하고 새로운 장소이미지 만들기에 동원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근대 서울의 관광이미지에 표상된 시선과 인식

사진은 시간과 공간을 순간 포착해 만든 영상언어로서 궁극적인 기능은 '보여 지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광사진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광욕구와 동기를 유발하며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진의 보편적 특성에 더해 심미성, 매력성, 차별성 등이 요구되는 상업사진의 일종이다(김선희, 1997). 그러므로 관광상품으로서의 사진은 사실의 재현을 넘어 제작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도구화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시각매체이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리로 사실상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시작하면서 근대 교통수단인 철도의 부설, 한일 간 정기 여객선인 부관연락선 취항, 1906년 통감부 설치 등에 이어 1910년 조선총독부 설치로

그림 40. 근정정 조망(1)

그림 41. 근정전 조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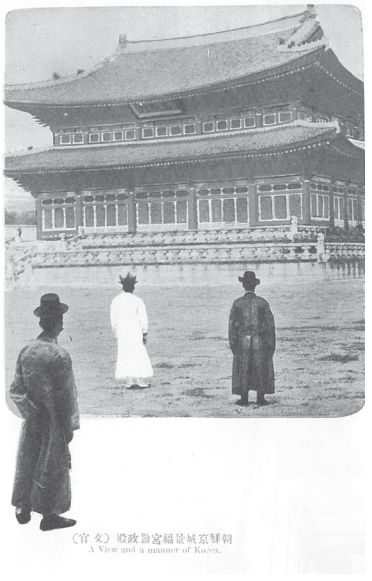

그림 42. 근정전과 관리

그림 43. 경회루와 여인

그림 44. 경복궁과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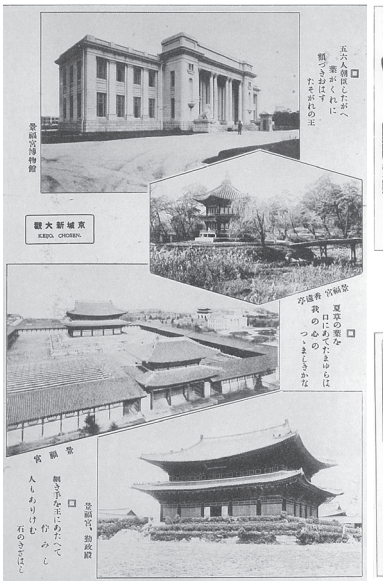

그림 46. 경성명소

그림 47. 조선인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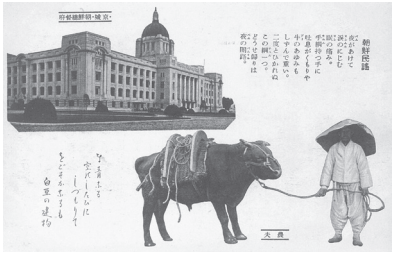

그림 45. 조선총독부와 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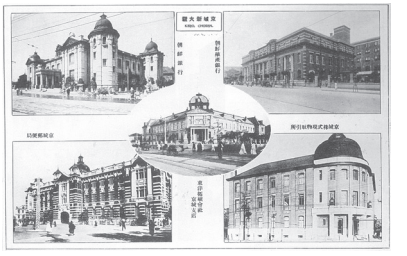

그림 48. 경성의 발전상

완전한 식민지화를 실현하였다. 총독부는 식민지의 수도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관광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관광안내서, 관광잡지 등을 비롯하여 관광상품으로서 다양한 사진그림엽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관광을 식민지 지배정책에 이용하기 위해 관광부흥정책을 입안하고 일본인이 여행할 만한 관광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서울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였다. 당시 사진그림엽서에는 서울의 모습이 사실 그대로 재현된 이미지 외에 왜곡, 변질된 이미지, 의도된 차별적 이미지, 사실적 재현이라 하더라도 관광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미지, 사람과 삶이 배제된 건축물의 파노라마식 전시 이미지 등이 상당하였고, 이를 통해 표상된 이미지가 소비되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근대 서울의 역사와 도시경관이 작위적인 연출, 편집으로 관광이미지화, 상품화된 몇 가지 예증을 통해 일제의 시선과 인식을 좀 더 들여다보았다.

그림 40~그림 44는 근대 서울 사진그림엽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역사경관에 대한 연출 이미지로 특히 조선의 역사와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작위가 많았다. 경회루에서 근정전을 바라보는 조망은 같은 구도의 이미지에 일본 복식의 남성을 등장시켜 왕조의 위상과 퇴락을 중첩시키고, 근정전을 바라보는 조선 관리들의 뒷모습에서 패망한 왕조에 대한 원망과 영화롭던 과거에 대한 회상이 묻어난다. 또한 경회루와 여인, 경복궁과 여인에서는 정확히 신분을 알 수는 없으나 조선여성을 등장시켜 조선이미지 형상화에 자주 이용되었던 기생이미지와 중첩시킴으로써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고 궁궐의 권위를 지우고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편집된 이미지를 통한 부정적 차별화 방식의 시선대비는 사진과 그림에 시가를 더해 좀 더 노골화하였는데 그림 45는 일제의 상징 총독부 건물과 조선 민초의 상징 농부를 대비시키고 거기에 한국민요와 일본시가를 더해 미개와 문명, 조선과 일본을 차별화하고 있다. 조선민요의 '고삐 줄 쥔 손에 한숨을 더하면... 두 번 다시 끌고 싶지 않은 이 줄 하나'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반면 일본시가의 '엄숙도할사 백악(白堊)의 건물...'은 일제의 문명을 찬양하고 있다(최현식, 2016b). 또한 일본인의 서울관광 열기를 짐작하게 하는 다량의 세트 사진그림엽서에서도 차별적 시선대비가 잘 드러나는데 그 중 1매의 엽서에 2~5장의 사진과 그림을 조합해 서울의 관광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경성백경과 경성신대관이 대표

적이다. 그림 46은 경복궁박물관, 향원정, 경복궁, 근정전을 상하로 배치하였는데 일제가 궁궐 안에 세운 서양식 박물관을 가장 위에 놓고 그 아래로 수풀이 무성한 내정과 계단에 모란이 식재된 정전 이미지를 배치해 권위와 위상을 폄하하고 궁궐을 사물화 된 전시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림 47은 시골길, 농사일, 손빨래, 항아리장수, 장승 등 조선인의 생활상이 전근대적이고 미개하며 정체(停滯)된 후진성(後進性)으로, 그림 48은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경성우체국, 동양척식회사, 주식현물취인소 등 일제가 세운 건물들이 근대적이고 문명적이며 발전된 선진성(先進性)으로 표상되고 있다.

5. 요약 및 결론

100여 년 전의 관광상품이 근대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를 조명 받고 있다. 서울의 사진그림엽서에 담긴 다양한 이미지들은 당시의 시대상과 장소성은 물론 당대 사람들의 가치와 인식체계 등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 흔히 사진이미지는 피사체에 대한 취사선택, 성형과정에서 배제와 통제가 작용하므로 일종의 편집된 기억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관광으로 위장한 작위적인 이미지들은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서 제작자의 의도가 투영된 시선의 표상이다.

서울의 근대 사진그림엽서 1,452매에 담긴 이미지는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일제의 한반도 주요 도시에 대한 관광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역사경관은 전통과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창덕궁·창경궁 등의 고궁과 도성의 상징인 성문에 집중되었는데 대개 해체, 개조, 파괴, 변용의 대상으로 재현되었다. 권위와 위엄을 박탈당한 궁궐은 관광지 또는 유원지로 전락하였고, 근대성에 가져진 장소상실의 단면으로서 성벽과 성문이 파괴되면서 조선다운 것으로서의 역사경관은 전근대적이고 쇠락한 과거의 표상으로서 지우거나 대체되어야 하는 이미지들로 재현되었다.

반면 식민지 경영의 전시장로서 일제가 서울에 재현하고자 했던 이미지는 제국주의 일본의 전통과 식민화의 상징인 신사와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도시의 발전상에 집중되었다. 신사를 대표하는 조선신궁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시선이 대비되도록 설계되어 서울의 중심부인 남산에서 일제가 새로 건설한 식민지의 수도를 관조하며 내선일체의 표징으로 재현되었다. 또한 남산에서 북악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중심시가지에는 포장도로, 전차로 연결되는 번화한 남북, 동서 가로망을 따라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경제, 상업 등을 관장하던 근대 건축물들이 파노라마처럼 채워졌다. 여기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철도가 부설되고 도시공원이 만들어졌으며, 조선인 거주지와는 대비되는 일본인 거주지인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서울의 근대적 도시경관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서구식 근대화를 표방했던 일본이 식민지 수도 서울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은 지배와 통제의 기제로서 영상, 시각, 관광 매체를 이용했던 서구의 오리엔탈리즘과 다르지 않았다. '조선적인 것'으로서 왜곡, 변질된 역사경관과 '일본적인 것'으로서 제국의 선전물이 된 도시경관을 편집한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식민지 조선과 문명국 일본의 본질과 가치를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차별화하고, 장소지우기와 장소만들기 과정을 통한 공간의 식민화를 완성하기 위해 동원된 표상이었다. 나아가 일제는 전근대와 근대, 미개와 문명, 후진성과 선진성 등으로 대비되는 우월적, 지배적, 제국주의적 시선과 태도가 투영된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를 다양한 주제의 관광상품으로 소비, 유통시켜 식민지에 대한 차별적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였다. 특히 작위적으로 연출된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조선 폄하와 일제 찬양을 노골화하는 하나의 정치적 산물로서 '이미지의 정치', '관광의 정치'를 위한 상징도구로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일제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비된 근대 한반도 사진그림엽서 중에서 지배자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식민지의 수도 서울에 국한하여 관광이미지와 표상, 시선 등을 포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주요 이미지의 시대별 변천이나 이미지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

분석 등이 미흡하여 추후 보완이 요구된다. 나아가 일제는 식민지에 대한 정보 획득과 식민지배의 정당성 확보, 제국민의 자부심과 식민지민의 열등의식을 확인시키고자 내지인의 물론 조선인의 관광여행을 적극 장려하고 다양한 관광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식민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근대 관광지 형성과 관광자원 개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부산, 인천, 평양, 개성 등 주요 관광지역의 이미지 표상과 시선에 대한 연구와 관광안내서, 관광잡지, 여행기 등 당대의 다양한 자료와의 비교 연구 등 우리나라 근대관광의 실체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

1) 관광지의 경관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인쇄해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는 엽서를 흔히 '관광엽서'라고 부른다. 관광, 시각이미지, 우편 기능이 합쳐진 관광사진엽서, 관광그림엽서의 축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다양한 관광엽서를 발행했던 일본에서는 '에하가키(繪葉書)' 즉 '그림엽서'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진엽서와 그림엽서가 모두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구한말부터 일제시기까지 우편엽서에 나타난 한반도의 장소, 경관 이미지의 유형과 내용, 표상된 시선 등에 주목하면서 좀 더 명확한 '사진그림엽서'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 Isabella Bird Bishop(1831~1904)은 영국의 여성 여행가로 1854년 7개월 동안 북미를 여행한 데 이어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아시아, 러시아, 북아프리카 등지를 여행하며 1899년까지 총 10권의 여행기를 남겼다. 그 중 1894년 처음 인천 제물포를 통해 조선에 입국해 1897년까지 4년간 4번에 걸쳐 11개월을 체류하며 서울, 개성, 평양, 금강산, 원산 등을 비롯해 만주의 조선인 이주지역까지 여행했다. 그녀의 한국여행기(Bishop, I., 1898,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Revell, New York) 출간은 19세기 조선이 서구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3) Percival Lowell(1855~1907)은 1883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미국공사가 부임한 답례로 조선의 외교사절단인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될 때 안내할 최초의 외국인 서기관으로 임명되었다. 보빙사 일행의 외교 안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로웰은 고종의 빈객으로 초대되어 입국한 최초의 서양인이다. 1883년 12월~1884년 3월까지 약 3개월을 체류하는 동안 서울의 명승고적을 비롯하여 기후, 지형, 민속, 풍습, 생활, 문화, 도시 및 상업경관 등을 관찰하고, 사진과 함께 여행기(Lowell, P., 1885,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Harvard Univ. Press, Boston)를 출간했다.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서구에 소개한 최초의 기록물이다.

참고문헌

권혁희, 2003, "일제 강점기 사진엽서에 나타난 재현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36(1), 187-217.

권희주, 2013,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수학여행-그 혼종의 공간과 교차되는 식민지의 시선," 한일군사문화연구, 15, 279-300.

김덕현·김현주·심승희(옮김),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김백영, 2009,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 지성사.

김선희, 1997, "지리사진의 관광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진지리, 5, 15-29.

김종갑, 2010, "초월적 기표로서 '조용한 아침': 퍼시발 로웰의 『조선-조용한 아침의 나라』," 19세기 영어권문학, 4(1), 7-33.

김창수, 2009, "식민지기 인천의 사진엽서와 시선들,"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 7-29.

김희영, 2008a, "제국주의 여성 비숍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 여성의 표상," 동학연구, 24, 145-163.

김희영, 2008b, "오리엔탈리즘과 19세기 말 서양인의 조선 인식: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6, 165-181.

박지향, 2001,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이자벨라 버드 비숍과 조지 커즌의 동아시아 여행기," 안과 밖, 10, 295-320.

부산박물관, 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1-8), 민속원.

신동규, 2017,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동북아문화연구, 51, 151-169.

신문수, 2009, "동방의 타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

과 그 이웃 나라들』," 한국문화, 46, 119-138.
신복룡(역), 2000,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Bishop, I., 1898,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Revell, New York).
오윤빈, 2014, 근대기에 형성된 한국이미지: 사진엽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남숙, 2014, "퍼시벌 로웰과 한국,"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2), 171-213.
우라카와 가즈야(浦川和也), 2017,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 조선(1-7), 민속원.
윤소라, 2013,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인 여성의 시각화와 이미지 생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지나·정희선, 2017, "P. 로웰(P. Lowell)의 여행기에 나타난 개화기 조선에 대한 시선과 표상," 문화역사지리, 29(1), 21-41.
이지나·정희선, 2018, "I. B. Bishop의 19세기 말 조선 여행기 속 재현양상 분석 연구: 주제어와 형용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1), 1-17.
임성모, 2011, "1930년대 일본인의 만주 수학여행-네트워크와 제국의식," 동북아역사논총, 31, 157-188.
정재정, 2010, "식민도시와 제국일본의 시선-奈良女子高等師範學校 생도의 조선·만주 수학 여행(1939년)," 일본연구, 45, 69-93.
정치영·米家泰作, 2017, "1925·1932년 일본 지리 및 역사교원들의 한국 여행과 한국에 대한 인식," 문화역사지리, 29(1), 1-20.
조성운, 2009,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관광정책," 동아시아문화연구, 46, 7-45.
조경철(역), 2001, 내 기억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Lowell, P., 1885,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Harvard Univ. Press, Boston).
최인택, 2017,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풍속 기억," 동북아문화연구, 51, 131-149.
최현식, 2016a, "이미지와 시가(詩歌)의 문화정치학(Ⅰ)-일제시대 사진엽서의 경우-," 동방학지, 175, 225-265.
최현식, 2016b, "이미지와 시가(詩歌)의 문화정치학(Ⅱ)-일제시대 사진엽서의 경우-," 한국학연구, 42, 9-56
홍순애, 2010, "근대계몽기 여행서사의 환상과 제국주의 사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3, 99-122.
홍준화, 2014,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對韓政治觀:『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을 중심으로," 韓國人物史硏究, 21, 425-445.
李良姬, 2007,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總督府の觀光政策," 東北アジア硏究, 13, 149-167.

교신: 김선희, 02844,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sunny-sungshin@daum.net, 전화: 02-920-7382)
Correspondence: Sunhee Kim,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2 Bomun-ro 34da-gil, Seongbuk-gu, Seoul 02844, Korea(e-mail: sunny-sungshin@daum.net, phone: +82-2-920-7382)

최초투고일 2018. 8. 6
수정일 2018. 8. 20
최종접수일 2018. 8. 28